

들꽃편지 663

2024.4.19. 곡우
<https://cyw.pe.kr>

기독교와 천국

사랑하는 자매님 형제님 안녕하세요?

왜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천국 또는 하늘나라, 천당이라고 부르는 그 어디를 가기 위해서인가?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불교와 유교의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에 내세관은 거의 불교의 내세관을 따르고 현세관은 거의 유교의 현세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역사가 절간의 나무 기둥만큼도 안되는 짧은 '한국 기독교'는 온전한 기독교 정신이 뿌리를 내리기 전에 불교, 유교와 혼합되어 이상한(?) 정체 불명의 종교가 되었다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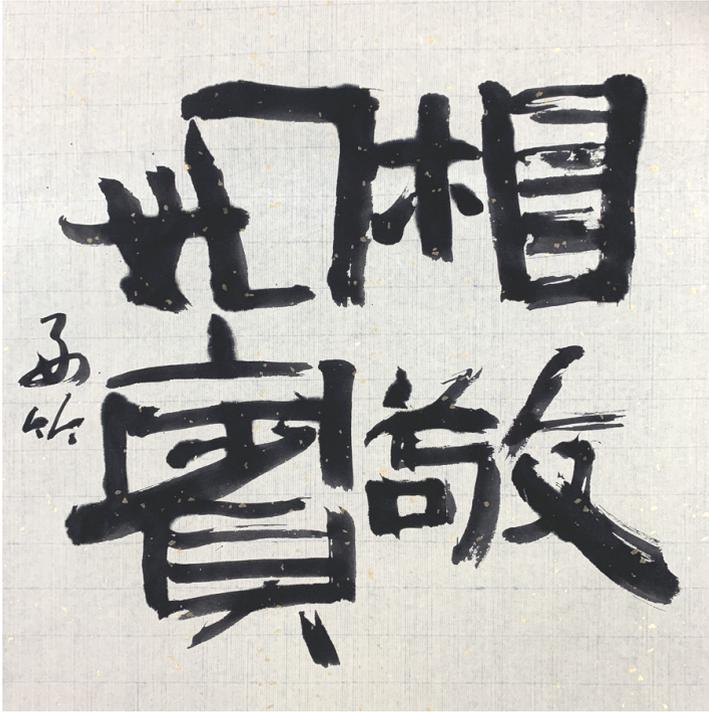


왜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그곳에 가기 위한 보험인가?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천국은 가는 곳이 아니라 오는 것이라는 내용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마25:31, 계11:15, 스후13:2, 엡1:21, 히2:5, 요3:13.)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만 사용하였고 마가, 누가 요한은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선포한 말씀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막1:15)

천당(天堂)은 불교용어이고 죽어서 '가는' 복된 세계를 가리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하는데, 우리의 생각은 그래도 자꾸 저 어디로 가야 할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내세관'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불교의 천당과 같은 개념을 기독교에서는 '낙원'이라고 하는데 이는 천당을 포함한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의 개념입니다. 기독교의 천국은 내세뿐만 아니라 현세까지도 포괄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손오공이 멀리 가도 부처님 손바닥 안이고, 아무리 부처님이라도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입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는 길목에서 최용우 올립니다.



相敬如賓(상경여빈)

서로 공경하기를 귀한 손님처럼...

西竹 이준우

아담의 범죄로

벌레가 나뭇잎 하나를 갉아 먹는 것.
그것은 '나무'를 갉아먹는 것이다.
내 위장에 병이 든 것은
내가 병든 것이고,
따라서 병원에 가는 것은
내 위장이 아니라 '나'다.

마찬가지 원리로
아담 한 사람이 넘어진 것은
곧 인류가 넘어진 것이다.
'인류'라는 몸 밖에서
태어난 '인간'은 없기 때문이다.

©이현주/ 목사, 동화작가



原罪와 사과 -홍봉기 작

회개54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여

집에서는 밥을 잘 먹습니다. 너무 잘 먹어 냉장고를 수시로 열고 먹을 것을 찾습니다. 조그만 플라스틱 통에 밥을 두 개 담아 경비 일을 나갑니다. 점심과 저녁식 사용입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면 금방 점심시간이 됩니다.

경비실에서 혼자 감사기도 올리고 밥을 아주 조금씩 입에 넣습니다. 반도 다 못 먹습니다. 밥맛이 없어 그런 것도 아닙니다. 먹으면 체하기 때문입니다. 서너 수저 뜨다가 도시락 뚜껑을 닫았지만 오늘도 또 역시 시작입니다. 어지럽습니다. 하품이 나옵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기운이 쭉 빠져 버립니다.

너무나 오래도록 습관적으로 그러기에 도시락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하여 중국 음식점을 사 먹어보기도 하지만 여전히 체합니다. 급한대로 활명수 탄산수 소화제 두통약 이것저것 먹고 진정을 시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을 못하기 때 문입니다.

이곳 저곳 내과의원 다니고 한의원도 가보지만 위장약만 가득 줍니다. 대장암 검진으로 인하여 1년에 한번 가는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검진 차 물어보았습니다. “기능성 소화불량” 어떤 약도 주사도 없이 한마디만 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질병은 죄와 연결되어 있음을.... 내가 악한 존재이니 그 악한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여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야고보서5:16)

점심시간에 저녁시간에 도시락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 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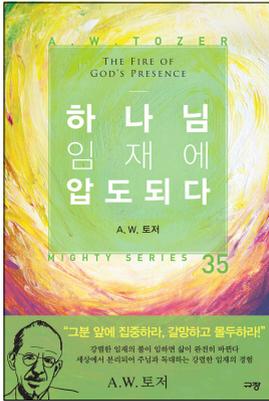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손제산 목사 (은퇴 목사)

아파트 경비원으로 첫날 근무하는데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왕년에 목사님이 셧다며 할머니들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그 후 할머니들은 저를 ‘목사님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어린 공주님도 배꼽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아찌 안녕 하세요?” 은퇴 후 새로 생긴 이름 ‘목사님 아저씨’ 저, 괜찮은 것 같네요.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다



토저 마이티 시리즈 35
A.W 토저 지음/이용복 옮김
248쪽 19,000원 규장 2023

“그분 앞에 집중하라,
갈망하고 몰두하라!”
강렬한 임재의 불이 임하면
삶이 완전히 바뀐다.
세상에서 분리되어 주님과 독대하는
강렬한 임재의 경험!

1. 모세와 떨기나무

사람이 살면서 선(善)한 일을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선한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과 무신론자도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나를 통해 일하느냐’입니다. 모세가 가시 떨기나무 아래서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자신의 정체성이었습니다.

2. 무한한 자원

모든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꿈이 있지만 그것은 자기 자신의 경험과 앞에 근거한 제한된 관점의 꿈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나의 정체성을 볼 수만 있다면 나의 삶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누군가에게 맡기실 때는 그 사람에게 그분의 권세와 무한한 자원이 허락됩니다.

3.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기

모세처럼 불붙은 떨기나무를 체험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지극히 크신 분’을 향해 눈을 들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제 마음이 당신을 지극히 갈망하고, 당신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제 마음속에 있는 당신의 말씀은 제 순종을 위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토저)

4. 하나님의 나타남

하나님의 나타남(현현顯顯)이 없는 믿음이라면,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는 충

분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문명 세계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모든 것을 알지만 자기 자신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알 만큼 '침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침묵하며 잠잠히 가만히 있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5.경배에 몰입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부흥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경외와 신성함을 회복하는 부흥입니다. 신성함과 경외의 부재가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불이 내려와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의 신성함 속에 꼭 빠지게 할 때까지 경배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6.교리가 아니라 체험

기독교의 비극적인 실패는 체험 대신 교리를 붙든다는 것입니다. 교리를 아무리 잘 설명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 자체를 목적 삼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끌고 가는 길이 되라고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통째로 암기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못 만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7.하나님은

하나님은 인간이 알기 힘든 분이시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이성주의(新理性主義)는 하나님을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 뿐, 지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히 크신 분이십니다.

8.떨기나무 속의 불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분 자신을 불로 계시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임하셨습니다. 성막에서도 그룹들의 날개 사이에서 불로 거하셨으며 그것을 사람들은 쉼기나(shekinah:임재)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불입니다.

9.하나님 체험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교리적으로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리를 붙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직접 붙들려야 합니다. 그 불(인간의 가슴속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밝은 빛)이 그분을 닮게 합니다. 그 불이 하나님과 나를 하나가 되게 합니다.

10.중요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을 불드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그 사람을 중요

한 존재로 만드시는 일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갖게 하십니다.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는 불로 변화가 됩니다. 산골짜기에 사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도 회심하고 불로 변화가 되면 그는 중요한 존재가 됩니다. 반드시 불을 통과해야 합니다.

11.하나님의 임재의 불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어떤 사람 안에 거하면 그는 완전하고 안전합니다. 그 누구도 그를 해칠 수 없습니다. 불을 품은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방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교회에 임재하시면 그 교회는 완전하고 안전합니다. 불을 품은 교회는 자기를 방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교회는 안전합니다.

12.불은 문제를 태워버린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불 가운데 계신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계속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각종 모임을 갖고 사경회를 연다고 해도 어떤 기술이나 방법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은 무수한 문제들을 순식간에 모두 태워버립니다. 문제는 성령의 불입니다.

13.불은 거룩하게 한다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의 불 앞에서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룩함이십니다. 인간의 마음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 바로 거룩함이십니다. 그분이 거하시는 마음은 거룩합니다. 인간의 가슴 안에서 불타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슴을 정화시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분이 계신 곳은 거룩합니다.

14.고집

고집은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합니다. 고집은 신앙생활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고집스런 사람은 방해받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온화한 모습을 보이지만, 자기의 길이 막히면 금방 불평을 하며 발끈하는 성질을 드러냅니다. 나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신령함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 굴복되어야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15.야망

야망은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합니다. 사람들은 종교의 영역에서도 무엇을 얻겠다는 야망에 사로잡힐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욕심입니다. 야망의 가림막이 쳐져 있을 때는 상황을 올바르게 정리하고 그 가림막을 찢어야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야망을 버리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16.두려움

두려움은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든지 그것은 '불신'입니다. 앞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자녀가 잘못될까 하는 두려움, 직장을 잃지 않을까



까 하는 두려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그 어떤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언제나 '불신앙'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는 까만 가림막입니다.

17. 자기사랑

자기사랑은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합니다.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리고 믿음을 갖고 회심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사랑에 빠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는 가림막이 됩니다. 자기 사랑을 포기하는 것은 높은 곳에서 떨어졌을 때처럼 고통을 줍니다. '자기사랑'과 유사한 것들로 '자기확장'과 '자아도취'가 있습니다.

18. 돈

돈은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합니다. 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서 정말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게 하는데 동전 두 개만 가지고도 그 동전이 두 눈앞에 놓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비용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19. 인간들

'인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합니다. 주님은 코에 호흡이 있는 인간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에서 따돌림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인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인간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20. 내려놓을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머리 위에서 발아래로 내려놓아야 할 것들은 돈, 사람, 친구, 지위, 사랑하는 사람들, 야망, 교만, 완고함, 고집, 내것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성령님께서 지적하는 어떤 것들을 싹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새 발아래 있는 것들은 사라지고 우리 위에는 맑은 하늘만 있게 될 것입니다.

*독서일기 -최용우

넘어짐

산에서 냅다 뛰다
나무뿌리에 걸려
쿠궁! 넘어졌다.
얼마나 세계 넘어졌는지
무릎이 까지고
지구도 조금 흔들리고

앞만 보고 뛰다가는
무심한 세월에 걸려
파당! 넘어질 수 있다.
허망하게 넘어지면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다.



최용우 제9시집<일출봉에 햇별이 짙하오>

[덧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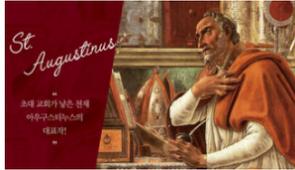
허허실실 /산에서는 뛰지 마세요.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지구 또다시 흔들리거나 금이 가면 안되니까요^^ 재미있는 시예요.

달뭇 /어릴적엔 가끔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무릎을 까고는 하였는데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죠. 어찌다 비틀~ 해도 균형을 잡게 되었죠. 그러나 가끔 착- 자빠져서 무릎에 핏방울을 달고 서럽게 울던 그런 날이 그리기도 합니다. 잘 넘어지지 않는 나날들이 심드렁하니까요.

동연재 /쿠궁! 파당! 소리 예까지 들립니다. 미구도 일전에 건초단에 왼손 엄지손가락 끝이 찢여 엄지손톱 아래가 시키뭇게 핏물 배었습니다. 손톱이 빠질까 싶었는데 다행이 그 지경까지는 안 갔습니다. 오르는 모든 길 깊이깊이 짙어가며 다녀야 할 듯합니다. 손목에 힘을 다 빼고 풀어놓은 글 고맙게 읽고 갑니다.

시골님 /아이쿠~ 저런.. 어서 호~하세요 ^^

두 나라의 참된 기원-천사들의 순종과 반항



286. 신국론 제2부의 주제

신국론 2부는 앞으로 10권에 걸쳐서 하늘 위 나라와 땅 위 나라의 기원과 발전과 정해진 종말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두 세계는 오늘날 세상에서 서로 복잡하게 뒤섞여있다. 이 두 나라가 어떻게 천사들의 차이로 시작되었는지 이야기하겠다.

287. 하나님은 중개자를 통해서만 드러내신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물체적 피조물도 사용하지 않으신다. 신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과 소리를 듣는 사람 사이에 펼쳐진 공기로 채워진 공간을 움직여서 귀에 들리도록 하시지 않으신다. 또한 꿈이나 그와 비슷한 현상에서 보는 것처럼 형체가 있는 어떤 영적 대리자도 쓰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물체를 수단으로 인간이 그 믿음 안에서 신앙을 가지고 진리를 목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진리 자체이며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하나님의 신성을 간직한 채 인성을 받아들여 신앙을 시작시키고 그 토대를 만드셨다. 그 신앙은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딤펵2:5) 예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14:6)고 말씀하셨다.

288. 성서의 권위와 개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중개자는 처음에 예언자들이, 그 다음에는 그가 직접, 그 뒤에는 사도들을 통해 충분하다고 생각한 만큼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기준(경전)이라 불리는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 ‘성서’라는 책을 세상에 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모르면 자유로워질 수 없고 우리들은 스스로 알 수 없기에 이 권위의 책을 믿어야만 한다. 우리의 내적 감각이든 외적 감각이든 감각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일을 아는 것은 우리가 그 중인이기 때문이다. -(계속)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3



2. 사람의 전통과 적용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율법학자)들이 ‘사람의 전통’을 지키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입니다.(막7:8) 구약 모세의 율법이 삶의 모든 문제를 세세하게 가르쳐 주지는 않았습시다. 그래서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현실에 맞게 좀 더 해석해서 구체화시킨 것이 ‘사람의 전통’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전통’도 다 하나님의 계명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람의 전통’을 오늘날로 비유를 해보면 ‘적용’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설교자들은 마치 짠 것처럼 설교 끝부분에 꼭 사족을 붙이는데 그게 ‘적용’입니다. 설교를 잘해 놓고 마지막에 서당 훈장님처럼 ‘이래라, 저래라’ 하여서 설교를 잔소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또 큐티를 할 때도 꼭 마지막에 ‘적용’을 합니다. 말씀을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꼼꼼하게 기록 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말씀 그 자체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적용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잘못 해석하여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용’의 선수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적용을 했는지 예를 들면 십일조를 할 때도 박하와 운향과 마늘 한 쪽까지 계산해서 십일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위선자들이! 너희들은 더 중요한 것은 외면한 위선자들이다.”(눅11:42-44)

‘적용’을 강조하다 보면 적용을 위해 오히려 말씀을 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아

이가 더럽다고 목욕을 시키다가 목욕물을 더럽힌다며 아기를 버리는 꼴입니다.
(7721)

22. 오늘날 사람의 전통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율법학자)들이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무심코 지키고 있는 '사람의 전통'들이 참 많습니다.

기독교는 전 세계가 하나의 교회로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임으로 무시 못할 힘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 한목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한국에만 수백개의 교단이 있어서 각자 목소리를 내는 바람에 마치 장마철에 연못에서 개구리들이 우는 것 같습니다. 모두 자기들이 '원조'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숫자 많고 교인들 숫자가 많은 것이 '권력'이 되어 그것 가지고 서열을 만들어서 작은 교단들, 작은 교회들을 공공연하게 깔보고 무시합니다. 이것이 '예수 정신'입니까?

기독교에서 공동으로 사용하자고 만든 '찬송가'와 '성경'도 교단 이기주의 때문에 수준이 한참 떨어지는 물건을 내놓고 그 이익 나눠먹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옳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가장 빈부격차가 심한 곳이 교회입니다. '부익부 빈익빈'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척교회 목회자들은 세를 못 내서 '자살'하는 목사가 있는데, 소위 말하는 대교회들은 넘쳐나는 헌금을 주체할 길 없어서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방탕하게 흥청망청 낭비하고 있습니다. 요즘 '신o지' 집단에서 개척교회 임대료를 내주며 교회를 통째로 접수해 가고 있다 합니다. 이게 옳습니까?

사람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이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람의 전통을 버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절대화 하는 것은 안됩니다. (7722)

23. 부모 공경 문제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율법학자)들이 '사람의 전통'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 것을 예수님은 '부모 공경' 문제를 예로 들어 말씀하십니다. 모세오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핑계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입니다.

오래 전에 방직공장에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야간고등학교를 다니던 자매가 월급을 받아서 여기저기 쪼개면 하나도 안 남는데 '십일조 헌금'을 시골에 계신 부

모님께 보내드리면 안되겠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청년 담당 목사님은 “그래도 십일조는 교회에 내고...” 저는 그때 ‘청년회장’이었는데, 자매가 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십일조를 보내 드려도 되지 않나? 아닌가? 고개를 갸웃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구약 성경 모세오경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단호합니다. 부모에게 욕하는 사람은 때려 죽여야 한다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 가운데 사람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일 정도입니다.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는 ‘늙어서 생존능력’이 없는 노인을 가리킵니다. 갓난아기는 생존능력이 없어서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 생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나이가 들어 스스로 생존능력이 없는 부모는 자식들로부터 갓난아기와 같은 세심한 보살핌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유럽 선진국들은 ‘노인들의 생존’에 많은 국가 재정을 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은 OECD국가 중 가장 높고, 노인 사망 원인에서 자사(自死)의 비율 또한 가장 높습니다. 지금 세계 5위의 군사대국 자랑할 때 입니까? (7723)

24. 언행상반(言行相反)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율법학자)들이 ‘사람의 전통’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언행상반(言行相反)입니다. 사람은 말과 행동이 언제나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하는데 그 삶을 보면 전혀 말과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바리새인들의 그런 위선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마23:27) 유대인은 1년에 한번 무덤이 눈에 잘 띄게 하얗게 회칠했는데 그것은 행인들이 무덤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얗게 회칠한 무덤은 석양빛을 받으면 마치 ‘황금 무덤’처럼 빛났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무덤 안은 시체의 살과 뼈가 썩어가는 심히 부패한 장소입니다.

겉모양은 경건해 보이지만 그 속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타락한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바리새인들의 그런 위선을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눅11:44)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땅속에는 시체와 같은 부패한 것들을 숨겨(은폐)놓은 것입니다.

러시아의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소설에 보면 정교회 대주교들이 재림한 예수를 감옥에 가두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누려온 모든 부귀영화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예수를 제거하고 계속 예수를 팔아서 자기들의 자리를 보존한 것이지요. (7724)

25. 적반하장(賊反荷杖)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율법학자)들이 ‘사람의 전통’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 두 번째 이유는 ‘적반하장(賊反荷杖)’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을 올바로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말로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스스로 절대화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조금 더 나가면 ‘사이비 교주’가 됩니다. 그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목회자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목회자를 잘 대접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목회자 말을 안 듣더니 육교를 올라가다가 굴러서 다리가 부러졌다... 아무개는 목회자를 잘 대접했더니 어떤 복을 받았다. 그런 말을 공공연히 합니다.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그 밖의 개인의 일은 교회 일보다 중요하지 않게 말하는 것도 적반하장입니다.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태극기와 성조기와 특이하게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면서 자신들을 ‘애국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 국기를 흔드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보겠는데, 이스라엘 국기는 왜 흔들까요? 그들의 대부분이 ‘보수 기독교’인 것이며, 그들은 이스라엘에 관련된 것이라면 전부 ‘성경적’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들은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만 하면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처럼 ‘자기 확신’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적반하장(賊反荷杖)입니다. (7725)

26. 고르반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율법학자)들은 ‘사람의 계명’을 ‘고르반’이라는 말로 ‘하나님의 계명’과 통했습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며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사람이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습니다.(레27:28) 이 계명을 근거로, 자신들의 소유물을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고 선언하면 그 물건을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악용하였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부모 공경을 회피하려고 ‘고르반’을 악용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제도나 규칙이 오래되다 보면 점점 매너리즘(mannerism)에 빠지게 되고 ‘도그마’가 되고 습관이 되다가 어느새 돌이킬 수 없는 절대적인 법칙이 되고 맙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고르반과 비슷하게 오해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십일조 헌금’입니다. 그것에 손을 대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되고 십일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부어주시나 안 부어주시나 시험해 보라는 ‘말라기’ 말씀이 십일조 헌금 기도에 꼭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십일조 헌금은 꼭 본 교회에 하라는 말을 합니다. (십일조 헌금에 대해서는 따로 자세하게 글을 쓸 계획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고르반과 비슷하게 오해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일성수’입니다. ‘주일’을 ‘안식일’과 혼동하여 안식일처럼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현대는 초대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복잡한 세상입니다. 2천년 전 기준으로 현대 사회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그것을 담는 그릇은 시대마다 변해야 합니다. (7726)

27. 말씀을 폐기한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율법학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너희는 너희가 전수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였느니라. 또 이와 같은 많은 일을 자행하고 있도다.”(막7:13)라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말씀을 철저히 지키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더 잘 믿기 위하여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도 각 교파나 교회는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하여 ‘교단 헌법’을 만들고 ‘노회 활요’나 ‘교회 요강’ 또는 ‘교단, 교파의 분위기(Identity)’같은 것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게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믿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전통, 자기만족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누구보다도 더 철저히 ‘성경적’이며, 자기들이 ‘가장 옳다’는 ‘자기 함정’에 빠져서 타 교파, 타 교회들을 무시하고 정죄합니다.

우리가 이런 함정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교회)의 전통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무심코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여러 행사는 모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교회 밖의 직장생활이나, 장사나, 개인적인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교회 목회’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믿는 분위기 속에서 기독교 각 분야의 수 많은 특수 사역자들은 스스로 각개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이와 같은 많은 일들을 자행하고 있’(막7:13)습니다. (7727)

28. 예수님의 비판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막 7:13)는 예수님의 비판은 바리새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허물어버렸다는 점에서 과격하고, 그것이 반박할 수 없을 만큼 정확하다는 점에서 날카롭습니다.

예수님의 비판은 오늘날 누구에게 해당할까요? 설교자들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 지식, 신앙 경험, 무용담이나 이 세상 학문을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전합니다. 설교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귀'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반응이 좋은 이야기만 합니다. 또는 '은혜 중심주의, 교회 성장주의, 교회에서 설정한 목표' 달성을 위한 목적 설교를 합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야 하는데 너무 바쁜 나머지 말씀을 듣기 위해 조용히 가리웠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또한 자신의 설교가 어떤 상태인지 다른 사람에게 평가받는 것에 대해 '신성모독'처럼 여기면서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의 비판은 오늘날 누구에게 해당할까요? 설교를 듣는 자들입니다. 청중들은 '설교'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청중들은 자기들 귀에 달콤한 설교만 들으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양심과 영혼을 찌르는 설교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들먹이지만 실제로는 종교적인 업적에만 매달립니다.

예배의 중심인 '설교'가 예수님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기초부터 흔들리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7728)

29. 깨달으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율법학자)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은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막7:14)고 하십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깨달았나요?

'깨달으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공동번역성경은 '새겨 들어라.' 메시지성경은 '새겨 두어라'로 번역했고 루터는 '붙잡으라(fassen)'고 했습니다. 아마도 '깨달음'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평생 수도정진하며 구도자로 살아가는 스님들이 아닐까요? 구도자는 도(道)를 깨닫고 달관(達觀)의 경지 즉, 해탈(解脫)에 이르기 위해 평생 벽을 보고 앉아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결코 어리석다고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에도 평생 수도를 하며 살아갔던 수도원의 수사들과 사막 교부들, 은수자들이 있었고, 그들의 수도에서 나온 사유의 은총을 지금 우리가 힘들이지 않고 편하게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수도자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짐승’같은 악랄한 의식으로 세상을 정글로 만들어서 약육강식을 따라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며 피비린내 나는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말을 단순히 ‘듣는 것’과 ‘깨닫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듣는 것’은 정보이며 뇌에 ‘지식’으로 새겨집니다. ‘깨닫는 것’은 어떤 실체의 근본에 도달하는 존재 변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은 알아야 하는 정보(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 믿어져야 하는 실존이고 실체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지금 나는요? (7729)

30. 깨달으려면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깨닫는 차원의 공부는 역지로 되지 않습니다. 깨달음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영을 열어주지 않는 한 말씀을 깨닫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싶다는 마음만 가지고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무슨 신비한 비결을 배워서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하게 매달리던 어떤 사실이 문득, 번개처럼 해석이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이나 글로는 깨달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할 방법이 없기에 ‘깨달은 사람’이 아닌 이상 ‘깨달음’을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사과맛’을 아무리 글과 말로 설명을 해도 먹어본 사람만 사과 맛을 아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요14:6)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노자’에게 들려 준다면 노자는 그 말을 금방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노자는 이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무엇인지 그 세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길이 뭐고 진리가 뭐고 생명이 뭐다’라는 것을 ‘지식’으로는 알지 몰라도 그 속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율법학자)들 보다는 더 까마눈인지도 모릅니다. 성경 지식만 머리에 가득한 채 실체는 전혀 모르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7730) ©최용우



서천 동백정에서 (사진:어떤 아주머니)

동백정

아내가 갑자기 바다가 보고 싶다고 하네.

“우리집에서 가장 가까운 바다는 차로 1시간 30분. 이즈음에 서천 동백정에 동백꽃이 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서천 마량 바닷가 동백정을 찾아갔는데, 동백꽃은 아직이었다. 다른 지역은 1-2월에 꽃이 피는데 동백정 동백은 3월 하순에 만개한다고 한다. “우리가 너무 일찍 왔어..”

갑자기 오래전에 군산 ‘월명공원’ 갔던 기억이 떠올라서 “월명공원 가자.” 갔다. 월명공원 주차장에 차를 대고 밖에 나오니 너~~~~~무 춥고 바람도 쌩쌩 불었다. “여보, 기냥 집에 가자. 구경이고 뭐고 너무 추워서 얼어 죽겠어.” 아내도 추웠는지 두말하지 않고 “바다 봤으니 됐어요 집으로 고(GO)” 집으로 열심히 달려와서 보일러 온도를 최고로 높였다.

첫마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화장실에 가서 간단하게 양치질을 하여 밤새 쌓인 입안의 세균을 헹구어 내고, 세수를 하고, 책방으로 와서 컴퓨터를 켜고, 주방으로 가서 전자레인지로 따뜻한 물 한컵 1분 10초 동안 돌려가지고 다시 책방으로 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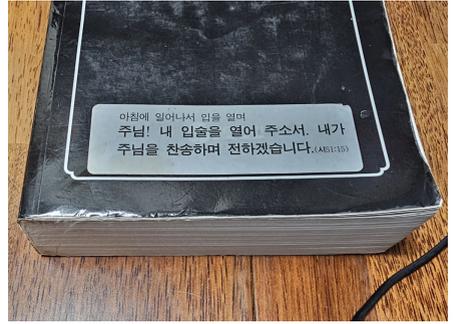
어젯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혈압을 재고 그대로 책상 위에 둔 혈압기로 아침 혈압을 재서 기록한다. 그리고 <예수어록>말씀묵상을 하기 위해 책꽂이에서 여러 가지 성경책을 꺼내어 쪽 쌓아놓는데 가장 위에는 조선어성경을 올려놓는다.

그리고 조선어성경 표지에 스티커로 붙여놓은 성경을 낮은 목소리로 읽는다.

“주님!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가 주님을 찬송하며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루의 첫마디를 떤다.

나의 하루 첫마디는 거의 매일 변함없이 똑같다.



봄까치꽃

처가에서 점심을 먹는데 처제가 창밖을 보더니 “저 보라색 꽃 이름이 뭐지?”

아내가 창밖을 내다보더니 “봄까치꽃이야. 봄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인데...”

그때 내가 끼어들어 “원래 이름은 개불알꽃이야.”

꽃이 지고 난 다음 맷힌 씨앗이 영락없는 개(犬)의 불알 두 쪽이다. 일본 이름 ‘이누노후구리’를 직역하면 ‘개불알’이어서 일본식으로 ‘개불알꽃’이라고 했던 것이다.

얼마 전부터 잘못된 일본식 이름으로 된 동식물 이름을 이쁜 한글로 바꾸는 중이다. 개불알꽃도 봄에 가장 먼저 피는 꽃이라 하여 ‘봄까치꽃’으로 개명했다.

우리 엄마가 보릿고개 시절에 밭에서 거둬다가 된장 풀어서 맛있는 국으로 끓여줬던 풀이다. 핸드폰으로는 사진이 잘 안 찍힐 정도로 아주 작은 꽃이다.



상추

아내가 상추를 가지고 왔다.

“와~~~~ 내가 좋아하는 상추대!”

상추는 맛과 영양이 풍부하고 기호성이 좋아 ‘천금을 주고 씨앗을 산다’고 해서 ‘천금채’라고 한다. 상추에는 피를 만드는 철분이 많아 혈액을 증가시키고 피를 맑게 한다. 상추는 영혼의 단짝인 ‘삼겹살’을 살포시 싸서 먹으면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게 한다.

그런데, 상추만큼 키워 먹기 쉬운 채소가 없다.....고 누가 거짓말을 했냐?

작년 가을에 마당에서 상추 모종을 화분에 옮겨심어 겨울내내 실내에서 길러 먹겠다던 야심 찬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잘 크면 삼겹살 만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상추 모종들이 “주인님, 삼겹살은 커녕 추워서 못살겠어요”하고 다 얼어 죽어버렸다. 상추가 자라려면 15-20℃를 일정하게 유지 시켜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음, 우리집이 너무 추웠나?



나의 왼발

비학산 올라가다 보면 긴 계단 구간이 있다. 그 계단을 우다다다다다다 내려 오다가 삐끗하여 넘어지면서

오른쪽 발이 왼쪽 발을 밟았다. 그러자 순간적으로 왼쪽 발의 통증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도록 오른쪽 발이 한 발로 서서 경중경중 뛰는 것이었다.

오른쪽에게 밟힌 왼쪽이는 화를 내면서 오른쪽에게 대들지 않았다. 산을 내려오면서도 오른쪽 발은 조금이라도 왼쪽 발의 힘을 덜어주려고 나의 무거운 체중이 오른쪽에 실리도록 절뚝, 절뚝 하는 것이었다. 오른쪽 발과 왼쪽 발은 내 사랑스러운 지체들이다.

나의 두 손은 특별히 왼쪽 발을 어루만지면서 양발을 벗기는데도 아프지 않도록 조심조심 벗겼다. 내 눈은 측은한 마음으로 왼쪽 발을 바라보아 주었다. 내 온몸은 하루종일 내 왼발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었다. 그래서 내 왼발은 행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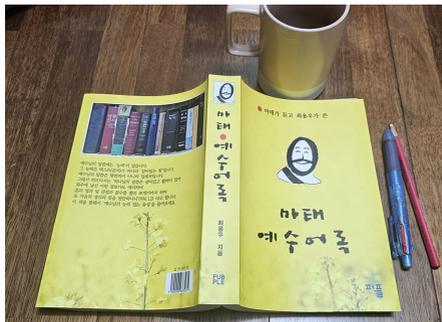


81번째 딸

드디어 나의 81번째 딸 <마태 예수어록>이 도착했다. 이번에 낳은 딸은 아주 건강해서 거의 700쪽 가까이 되는 우량아이다. 임신 기간만 무려 21개월이다. 643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아침 1시간씩 공을 들여 만든 책이다.

이 목상집은 성경 연구자료집도, 주석도, 설교집도, 큐티도 아니다. 새벽에 일어나 홀로 책방에 앉아서 “예수님, 오늘도 한 말씀 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날 주어진 빨강말씀(성경에 예수님 말씀은 빨간색으로 인쇄되어 있다)을 각종 버전 성경 15권에서 찾아 타자를 치며 천천히 읽는다. 그러면 어느 날은 잠잠하게, 어느 날은 불같이 2천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은 정말 황홀했다. 그렇게 받아적은 감동을 짙막하게 기록한 책이다.

책이 보면 볼수록, 아유~ 이쁘고 사랑스럽다.



우째 이런 일이~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국회의원 선거철이다. 우리동네 흥성국 의원이 일찌감치 재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후에 ‘무주공산(無主空山)’이 되는 바람에 우리동네는 이 사람 저 사람, 어중이 떠중이, 너도나도 한 번씩 출마를 저울질해 보느라 정신없는 지역이 되었다. 지역신문에 거의 10여명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그러나 경선을 통해 각 당 대표선수가 정해질 때마다,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출마를 포기하면서 우리동네는 여야 한 명씩 두 명이 대표로 붙게 되었... 누가 싶었는데 느닷없이 판 동네 국회의원이었던 분이 우리 동네로 와서 출마하겠다고 현수막을 건다. 뭐지?

그런데, 자고 일어나 보니 거의 55%이상 지지를 받던 후보가 링에 오르지도 못하고 낙마하고 말았다. 판 동네에서 온 분이 얼떨결에 대타로 링에 오르게 되었다. 우째 이런 일이~ ©최용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山行

▲제645회 금수봉(532m 대전)

수통골은 버스 종점에서 출발하여 크게 한 바퀴 뱅 돌면 약 11.7km이다. 오늘은 그냥 '금수봉'에만 오르기로 하고 점심을 먹고 집에서 나와 버스-전철-버스로 수통골 버스 종점에 도착하니 2시이다.

수통골 입구에서 화산계곡 끝부분까지 약 2km 구간은 거의 평길이라 근처 노인 요양원에서 나온 듯 보이는 어르신들이 가득하다. 천천히 숲길을 걷기에는 최고의 장소이다. 그러나 계곡 끝에서 금수봉으로 갑자기 치고 올라가는 길은 난이도 최고의 급 경사길이다.

금수봉은 정상에 올라서서 시방을 내려다보면 주위의 풍경이 마치 비단에 금수(金繡)를 놓은 것 같다고 하여 금수봉이라고 부른다. 금수봉에서 내려와 버스 종점에 도착하니 7.5km 2시간 21분 걸렸다. (2024.3.7.)



▲제646회 백암산(상왕봉741m 장성)

아우 최용남과 함께 올랐다. 기차로 정읍 역까지 간 다음 광주에서 올라온 아우의 차로 '구암사'까지 가서 산행을 시작했다.

막내 아우와 나의 나이 차이가 9년차이니 내 평생에 아우는 언제나 나에겐 '어린(?)' 모습이다. 올해 전남대에서 박사 과정을 마쳤다. 험한 세상 치열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아우이다. 바빠도 너무 바쁜 것 같아 어떻게든 좀 천천히 살라고 그의 시간을 자주 잡아당기고 있다.



오늘은 산행을 하는 내내 아우가 자기 이야기를 많이 했고, 점심 먹을 시간조차도 놓칠 정도였다. 백암산 정상인 상왕봉에서 내려다보는 조망이 기가 막혔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가끔 한 번씩 높은 곳에서 찬찬히 내려다보면서 숨을 쉴 시간이 필요하다. (2024.3.11)

▲제647회 비학산296 (일출봉252m) 3.20 수

▲제648회 장령산(656m 옥천)

원래 '장용산'이었는데 '장령산'으로 산 이름이 바뀌었고, 블랙야크+ 산으로 지정되어서 인증 겸 다녀왔다.

장용산일 때, 여름이면 온 가족이 물놀이 여러 번 갔었다.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 '장령산자연휴양림'이 새로 조성되어 있었고 입장료를 받고 있었다.

장령산 하면 '왕관바위'가 저절로 떠오른다. 산꼭대기 바위 무더기에 날씬한 사람이 겨우 통과할만한 틈이 있다. 만약 몸이 커서 통과하지 못하면 양쪽이 낭떠러지여서 저쪽으로 건너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왔던 길을 되돌아가야 한다. 억지로 통과하다가 바위틈에 끼기면 119를 불러야 하는 쪽팔리는 일이 벌어진다. 과거에는 꼭 끼겨서 겨우 통과했었는데, 이번에는 속 빠졌다. 확실히 내가 날렵해지긴 한 것 같다. 인정! (2024.3.29)



▲제649회 변산(424m관음봉 부안)

내소사 주차장에서 10시에 광주에서 올라오는 아우와 만나 등산을 시작하기로 했는데, 아우가 엉뚱한 곳에서 해마다가 한 시간이나 지각하는 바람에 점심을 먹고 출발하기로 하고 식당에 들어갔다.

산채비빔밥+청국장 세트를 먹었다. 맛이 썩지 않고 습습하니 입에 딱 맞았다. 확실히 전라도 음식은 전라도만의 맛이 있다. 이 좁은 나라에서 지역마다 맛이 다르다는 것이 참 신기하다.

밥을 먹고 일주문 지나 전나무길 화장실 옆 등산로를 타고 올라가 가볍게 관음봉 찍고 내려와서 내소사 경내를 한 바퀴 돌고 등산을 마쳤다. 점점 봄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시기라서 그런지 고개를 들면 벚꽃, 산수유, 목련, 홍매화가 가득 피어있고 고개를 숙이면 진달래, 수선화, 제비꽃, 봄까치꽃이 가득하다. (2024.4.1.)



●여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행은 2004년 1월 10일 시작되어 1주일에 1회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산행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날짜를 맞춰 동행하겠습니다. 오르고 싶은 산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달려가겠습니다. 010-7162-3514 최용우



우리의 만남은 맛남입니다~

①곡우-단비가 내리네요.

곡우(穀雨)는 농부들이 비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지은 이름입니다. 겨울에 태어난 송아지는 흠쩍 자라고 추위를 잘 버틴 고라니 새끼들은 어미와 들녘을 오고 갑니다. 온갖 꽃이 만발하니 꽃나들이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곡우를 지나면서 한해 농사 준비를 시작합니다. 지난해 거뒀던 밭씨를 담가 못자리 준비를 하고 가을에 저장해둔 비료를 대지에 뿌려 땅의 힘을 키웁니다.



②표지사진 이야기

나무 중에 저절로 죽지 않고 조건만 맞으면 무한정 사는 나무가 느티나무와 은행나무라고 합니다. 느티나무와 은행나무는 병에 걸리거나 벼락을 맞거나 벌레가 파먹거나 사람이 톱으로 자르거나 기후와 환경이 변하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만 생명이 멈추는 나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엔 수령이 1천년 넘는 느티나무 총 14그루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마을을 수호하는 당산목으로 수백년씩 자란 느티나무가 각 마을마다 몇 그루씩은 있습니다. 느티나무는 그 품이 크고 넓어서 여름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제공하고 평상시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번 호 표지의 느티나무는 강원도 부론 법천사지 터에 있는 느티나무를 한희철 목사님께서 찍어주셨습니다.

③도서출판 소식

신간 <마태-예수어록> 692쪽 28000원 -2024.3.19. 출간!

2024년 첫 책이 나왔습니다. 두꺼운 책이라 편집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80.아내에게 바치는 시(시집11) 컬러216쪽 15000원 -2023.12.26. 출간!

79.들꽃편지20권-호박꽃호 컬러510쪽 30200원 -2023.12.20

인터넷<교보문고>에서 '최용우'나 '책 이름'으로 검색하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교보문고>를 통해서 현재 75권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에도 매월 1권꼴로 신간을 낼 계획입니다.

✿살림 드러내기 -2024.3월 재정결산

2024년 3월(1-31일)에 후원하여 주신 분들입니다.(호칭 생략. 가나다순)
김광현 김상식 김준경 박근식 박승현 박신혜 양희창 오창근 옥치오 이인숙
이재익 이진우 임대근 장기갑 장기갑 정효숙 지경희 최상복 최용남 한주환
홍시은 새벽기도 선한열매교회 안디옥교회 함안중앙교회
총 25분이 1,100,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주님! 천사들을 동원하여 햇별같은이야기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천사로 부름받은 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소서!
늘 생각하면 마음을 울컥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정성... 정말 감사드립니다.

○햇별같은이야기가 이 시대의 땅끝인 사이버 세상에서 악한 영들과, 사이버 이단들과, 유사 기독교로 미혹하는 영들을 대적하여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터넷문서선교헌금'을 작성해 주십시오. 우리는 후원자들을 '거들 짝'이라고 하며, 매일 이름을 부르며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음과 같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일' 자체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도록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①햇별같은이야기<http://cyw.pe.kr>인터넷신문 2024.4.19.일까지 7787호 발행

②문서사역 -월간<들꽃편지>, 후보자료파일, 전자자료 발행

③도서출판 -그동안 81권의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④기도회 -매일 후원자들을 위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⑤나눔사역 -8곳을 후원합니다.(독거인, 문서2, 인터넷, 북방선교2, 선교사, 난민)

⑥기독교피정숙터(준비)- 기독교에서는 리트릿(retreat)이란 이름으로 피정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작은 흙집 한 채를 빌려 <햇별같은집>이라는 이름으로 피정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잠시 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기독교식 피정의집을 지어 기독교목회사역자들이 언제든지 와서 편히 쉬어갈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월간<들꽃편지>는 따로 정해진 구독료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원하는 분들에게 그냥 보내드립니다. 다만,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지난호가 더러 남아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에게 챙겨 보내드리겠습니다.

최용우 저서 목록

① 햇별같은이야기 시리즈

1. 가슴을 짝 펴라 (308쪽 11600원)
 2. 다시 벌떡 일어나라 (336쪽 12400원)
 3. 정정당당 잘살자 (336쪽 12400원)
 4. 예수 잘 믿는 비결 (326쪽 12100원)
 5. 가장 큰 선물 (326쪽 12100원)
 6. 인생 최대의 행복 (316쪽 11800원)
 7. 나도 할말 있다 나옴 (318쪽 11900원)
 8. 하나님의 얼굴 (326쪽 12100원)
 9. 예수님을 따르는 삶 (328쪽 12200원)
 10. 예수 나의 형통 (330쪽 12200원)
 11. 하동-하나님과 동행 (330쪽 14300원)
 12. 예동-예수님과 동행 (326쪽 14600원)
 13. 성동-성령님과 동행 (330쪽 14600원)
- (1년에 1권씩 계속 나옵니다)

② 일기 시리즈

1. 감사일기-2015 (392쪽 14100원)
2. 햇빛일기-2016 (396쪽 14100원)
3. 행복일기-2017 (396쪽 14200원)
4. 풍경일기-2018 (400쪽 14300원)
5. 명랑일기-2019 (396쪽 15200원)
6. 바보일기-2020 (394쪽 23900컬러)
7. 웃긴일기-2021 (396쪽 23800컬러)
8. 여유일기-2022 (396쪽 23800컬러)

③ 시집 시리즈

1. 숲속의 아침 (138쪽 7200원)
2. 설레임 (146쪽 6700원)
3. 어부동의 아침 (150쪽 7600원)
4. 내영혼이 주를찬양 (398쪽 16300원)
5. 찬양하라 내영혼아 (398쪽 14300원)
6. 천번을 부르주님 내입에는 (1044, 34600)
7. 우리 커피한잔 할까요?(168쪽 11300컬러)
8. 일상의 행복 (210쪽 13600컬러)
9. 일출봉에 햇별이 째하오 (210쪽 13600컬)

10. 일상의 기쁨 (210쪽 13400컬러)
11. 아내에게 바치는 시 (220쪽 15,000컬러)

④ 말씀묵상 시리즈

1. 따뜻한 밥상1 창-대상 (400쪽 14100원)
2. 따뜻한 밥상2 대하-말 (398쪽 17300원)
3. 따뜻한 밥상3 시편 (400쪽 14100원)
4. 따뜻한 밥상4 잠-전 (398쪽 14100원)
5. 따뜻한 밥상5 마-막 (400쪽 14100원)
6. 따뜻한 밥상6 눅-요 (398쪽 17300원)
7. 따뜻한 밥상7 행-계 (398쪽 17000원)
8. 겨울묵상 (218쪽 13900컬러)
9. 마태 예수어록 (692쪽 28000원)

⑤ 경건기도 시리즈

1. 세상에서 가장 좋은이야기(722쪽24000원)
2. 세상에서 가장 밝은이야기(720쪽23900원)
3. 새벽우물 (878쪽 28700원)
4. 플러스 예화 (490쪽 17000원)

⑥ 주보자료 시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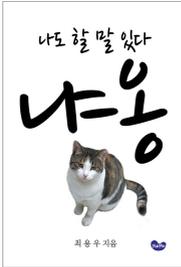
1. 맛있는주보+파일 (220쪽 14000컬러)
2. 멋진주보+파일 (220쪽 14000컬러)
3. 폼나는주보+파일 (220쪽 14000컬러)
4. 탐나는주보+파일 (220쪽 14000컬러)
5. 양육주보+파일 (220쪽 14000컬러)
6. 전도주보+파일 (220쪽 14000컬러)
7. 명품주보+파일 (220쪽 14000컬러)
8. 좋은주보+파일 (220쪽 14000컬러)
9. 감사주보+파일 (220쪽 14000컬러)
10. 기도주보+파일 (220쪽 14000컬러)
11. 주보자료1-10 USB (100,000원)

⑦ 기타, 들꽃편지

1.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산행1 (534, 31800)
2. 들꽃편지1-14권(단색편집)
(510쪽내외 21000-22000원내외)
3. 들꽃편지15-20권(올컬러편집)
(510쪽 내외 30100-30200원 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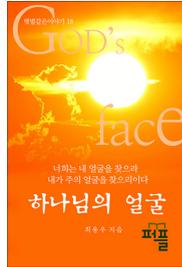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최용우 저서



나도 할 말 있다 나옹

나도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만약 내 생애가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면 나는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남기고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처럼 막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285편의 새로운 생활 글 11,900원 318쪽 퍼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밖에 모르시는 분,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우리의 모든 인생문제는 모두 해결될 것입니다. 288편의 깊은 영성 글모음 12,100원 326쪽 퍼플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말과 같습니다. 불확실성의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인지 고민하면서 일년동안 쓴 글 288편의 예수 동행글 모음 12,200원 328쪽 퍼플



예수 나의 형통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신앙이 형통하기를 바라십니다. 고로 예수님을 믿었으면 무조건 형통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288편의 예수 형통 글 모음 12,300원 328쪽 퍼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외로워 눈물 흘릴 때 주님은 어디에 계셨나요? 그때 주님은 나를 업고 고난의 강을 건너고 계셨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대네. 288편의 하나님과 동행 글 모음 14,300원 320쪽 퍼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24시간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으며,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288편의 예수 동행 글 모음 14,300원 320쪽 퍼플

❁ 여기에 소개된 책은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샬롬! 들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힘들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들꽃편지 <http://cyw.kr> *들꽃숨터(피점) <http://cyw.co.kr> *햇별같은이야기 <https://cyw.pe.kr>

*이메일 9191az@hanmail.net ☎ 010-7162-3514(문자로 먼저 용건을 남겨 주세요)

*후원구좌 국민은행 214-21-0389-661 농협 138-02-048495 하나은행 117-891254-32307

*30083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속티2길 5-7번지 들꽃편지 햇별같은이야기

들꽃편지 제663호 *발행.편집인: 최용우 (1990.1.1.창간)